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8)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자율적 건축 ①: 바로크 사슬(enchaînement baroque)과 자율적 건축(architecture autonome)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자율적 건축 ①
9. 자율적 건축 ②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지금까지 설명한 건축가들은 한 때 서양의 건축사에서 1세기 이상 잊혀졌던 프랑스 건축가들로 기묘하게도 본토 프랑스의 학자가 아닌 독일어권의 학자에 의하여 새로이 조명되어 현재 건축사 및 이론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통용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계몽주의시대의 건축 또는 소위 18세기의 선구적 모던 건축가들은 Jacob Bruckhardt (야콥 브룩하르트), Heinrich Wölfflin (하인리히 뵐플린), Alois Riegl (알로이스 리이글) 등으로 이어지는 Vienna School의 전통을 계승한 Emil Kaufmann의 저작의 덕으로 빛을 보아 현재와 같이 건축분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금세기 초에 발간된 그의 이론은 오늘에도 많은 부분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늘날 서양건축사 및 비평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의 이론이 지니는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기도 한다. 우선 그의 이론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단점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18세기의 Neo-Classicism을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고전주의의 개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Kaufmann이 만든 특수한 정의 내에 한정하여 과도히 단순화되고 좁혀진 범주에 가두어 버린다는 점이다. 일련의 그의 저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Kaufmann의 주제는 '이성주의 시대의 건축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자주적 건축 (Autonomous Architecture)', '혁명적 건축 (Revolutionary Architecture)' 등으로 변화, 발전하며 이어지고 있다. 그의 건축사상은 시간이 경과함에

* 본명 김원석

따라 변천, 발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들이 사라지지 않고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은 추상화된 건축물의 형태를 너무도 쉽게 철학과 연결하는 것, 그리고 건축적 구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시대정신(Zeitgeist)'의 개념을 암암리에 자신의 논문의 내용에 연루시키며 독립된 형태의 자율적 건축물 (architecture autonome: autonomous architecture)을 너무도 안이하게 당시에 대두되기 시작한 개인주의 사상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960년대 말경을 기점으로 새로운 논문과 저술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는데 Kaufmann의 연구와 비교하면 훨씬 덜 사변적이고 비이론적이어서 실질적인 건축의 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미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연구로부터 탈피하는, 고전주의 건축의 전통, 그리고 계몽주의 건축에 더욱 관련된 연구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Kaufmann의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던건축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소위 플라톤적 미학이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그의 건축이론을 가지고 추적할 수 있음과 아울러 적어도 Kaufmann류의 미학적 사고방식을 짚고 넘어가므로 유연한 이적 연계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주된 그의 사상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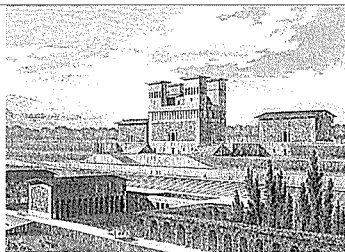
Kaufmann은 자율적 건축의 기원을 이미 Blondel로부터 시작하여 Ledoux에서 무르익어 후대로 전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의 저서 'Von Ledoux bis Le Corbusier(르두로부터 Le Corbusier까지)'는 건축에 있어서 자율적 건축의 원리를 사회적인(혹은 사회학적인) 법칙과 건축에 있어서 합목적성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합리주의적 건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Baroque건축과 비교를 한다. Baroque건축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위계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어서 하부 및 다락층은 별 기능이 없이 이 두 공간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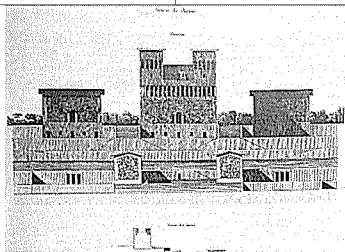
들어가는 bel étage¹⁾가 기능상 가장 중요하고 주된 성격을 지니며 하부층과 다락방은 2차적인 요소로 머문다. 거친돌 쌓기의 하부, bel étage 그리고 다락방으로 구성되는 각 부분을 하나의 체계 밑에서 통일된 모양을 구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양식의 주식(柱式)을 채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기초부분과 지붕 사이에 도입되는 주범(柱範)은 최하부와 최상부에 위치한 2차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상이한 요소들이 일체히 합동하여 조화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이다. 이것은 건축이 지니는 1차적인 조건, 즉 구조적인 요구 이외의 조건 즉 정신적 요구가 만족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축의 조건은 상이한 각 요소가 따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일치를 통한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완벽한 비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르네상스시대의 Leon Battista Alberti가 발표한 미의 법칙인 regularity(규칙성), symmetry(대칭성), proportion(비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체 모양은 변화가 많고 기분이 좋아야 한다는 조건, 시각적인 만족과 용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학적 합일치성(convenance)과 사회학적인 위계성을 건축의 형태로 표현함은 이미 르네상스시대에 등장하였지만 Baroque시대에 가장 훌륭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연계성의 개념은 모든 예술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요즘의 total art식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공히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타율(heteronomy)의 원칙을 채용하고 건축적으로 공간이나 요소의 한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각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정원 등에서의 식물의 배치 등은 건축의 법칙에 전반적으로 순응하여야 하므로 잔디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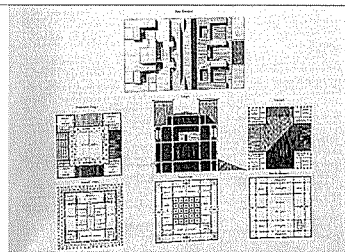
1) '이름다운 층'이라는 뜻의 bel étage(벨 에타주)는 '품격 있는 방'이란 의미를 지닌 이탈리아의 piano nobile(피아노 노빌레)에 해당하며 르네상스 건축 등에서 거주 및 주생활공간이 있는 2층 등을 일컫는다. 1층은 거친돌 쌓기(rustication)로 마감되고 주된 거주부분은 2-3층에 위치한 bel étage에 위치한다.



수렵정 (Pavillon du chasse)



수렵정 (Pavillon du chasse)



수렵정 (Pavillon du chasse)

은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구성되며 나무는 석조 조각물처럼 전지(剪枝)했어야만 했다. 공간은 이들 건축 및 부차요소 등으로 구획되고 한정되고 그 반대로 건물 내부에서는 천장 및 벽체 등의 trompe l'oeil(트롱쁘 뤼이)²⁾ 등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실을 확장하고 천장을 분해하는 수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다수의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므로 각 요소마다 고유한 allegory가 부여하는 것이 주된 수법이었다.

Blondel은 유기적 배치의 회화식(picturesque) 기법의 영국정원을 못마땅히 여기고 합리주의적인 프랑스 정원을 옹호했지만 그는 아직도 근대건축에 있어서 '타율적 시대'에 속해 있었다. 그의 제자 Ledoux는 타율적 건축과 자율적 건축의 경계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아직은 과거의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모델을 채용하곤 하였다. 어찌되었든 그의 작품에서 주목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고전양식을 차용하던 후기 바로크 건축으로부터의 완전한 탈바꿈이다. 예를 들어 이상도시에 세워질 수렵정(狩獵亭) 계획을 살펴보면 바로크 건축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1778년에 투시도법을 채용하여 묘사된 관화의 중앙부에는 두드러지게 우뚝 솟은 건물이 있고 낮은 건물이 그 주변에 배치되어 중앙의 건물에 예속된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지된 나무 울타리가 발견된다. 이 관화에서 발견되는 각 건물에는 각기 고유한 성격과 중요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요소를 연결하는 사슬(enchaînement)의 사상이 아직도 잔존하여 개체적인 건축이 아니라 모든 건물과 부속요소들이 하나로 판단됨을 알 수 있다. 중앙부의 건물은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바로크의 경우에서처럼 부분들이 상호 직접 접촉하여 연결되는 것은 볼 수 없다. 단지 부차적인 요소들인 산책로나 시냇물 등이 '사슬'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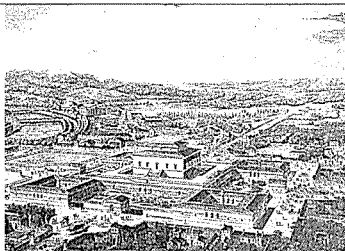
Ledoux에게 있어서 1780년대는 아이디어의

발전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이다. 당시에 염전계획안 및 이상도시계획안을 내놓았다. Ledoux에게 있어서 이 당시의 계획안 중 실현된 것은 염전계획안 뿐이다. 이상도시계획안은 비록 실현되지 못했으나 그가 말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던 주제였다. 그의 작품 중 Chaux(쇼)의 이상도시계획안(理想都市計劃案) 만큼이나 Ledoux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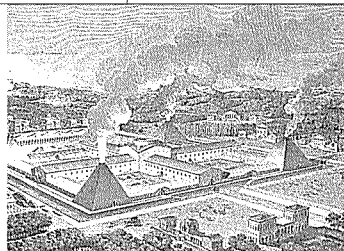
Chaux의 염전계획안은 Ledoux의 저서 L'Architecture에는 2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최초의 계획안은 건물들이 정원을 중심으로 사각형의 형태로 배치되었다. 주출입구 양편으로 감독관의 주택, 사무직원의 주거, 그리고 노동자들의 주거가 배치되어 있고 그 후면에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가 배치되어 있다. 대지 주위로는 산책로 및 비교적 단순한 기하학적 구성형태의 정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계획안에서는 딱딱하고 정적인 기하학의 채용 때문에 바로크의 특성 중 중요한 요소들인 운동성, 생동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 및 도시의 구성체계면에서 볼 때는 단지 약화된 바로크 건축의 양상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입면은 납작하고 낮게 계획된 바로크식의 건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돌출된 중앙부는 익부로 연결되고 익부의 건물들은 중앙부에 위계적으로 예속됨을 보여주고 있어서 각 부분들은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통일성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공간의 사슬은 Ledoux를 만족시킬 수 없어 제2의 계획안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제 2안 역시 L'Architecture에 소개되었고 일부는 실제로 지어졌는데 초기안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물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타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축 약간 남쪽 밑 쪽으로 감독관의 주거와 공장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축 연장선 동쪽엔 성당, 서쪽엔 재판소, 내호(內弧)의 북쪽 단부엔 시청, 그 좌우로 병사(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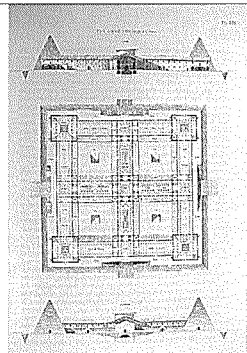
2) 눈속임이라는 뜻으로 3차원적인 실제 사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화의 기법.



Chaux市の 시장 (Marché du Chaux)



Chaux市の 대포주조소 (Fonderie de Canon)



Chaux市の 대포주조소 (Fonderie de Canon)

숨)가 배치되었고 외호(外弧)에는 고용인들의 주택이 배치되었다. 외호상에 위치한 주출입구 좌우로는 공중목욕탕이 있다.

여기서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이 아닌, 각기 독립된 부분들로 분리됨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발견하기는 비교적 어렵다. 하지만 과거의 바로크사슬(enchaînement baroque)이 합리주의적인 독립된 정자를 사용하는 구성방법으로 대체되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경계에 있는 계획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면의 분석은 형태결정에 관한 작가의 심오한 의도를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은 자연에 대한 바로크시대와 후기 바로크 시대의 시각을 증명해내기도 한다.

Chaux마을의 계획안은 소위 넓은 의미에서의 모던건축시대 이후로 많이 제안된 계획안 중의 하나이다. 모던시대 이전, 중세의 도시들은 지형조건 등을 따르는 불규칙한 형태의 도로 및 건물배치를 하고 있지만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건물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이 때의 건물들은 자연의 경관을 건축에 한층 더 연결시키고 관계를 역전시켜 자연을 창조적인 역량을 지닌 건축가의 의지에 따르게 한다. 따라서 Chaux의 이상도시 계획안의 평면은 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 준다. 작가에 따르면 부지와 위치는 실용적인 시점에서 결정되는데 이상도시는 Arcs(아르크)와 Senans(스낭)을 잇는 동-서의 축과 Besançon(브장송)과 Loue(루우)강으로 이어지는 남-북쪽의 축 등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상 평면에서 2개의 축은 이상도시를 외부와 연결하는 도로이며 두 축의 교차점은 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 Ledoux의 평면계획의 출발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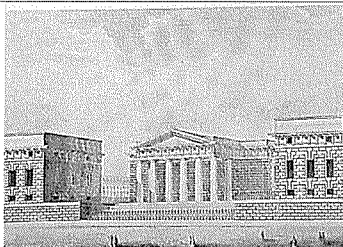
Chaux의 이상도시 계획안은 자연으로부터 분리, 격리되어 있고 바로크시대의 건축가들이 그러했듯이 풍경을 차경(借景)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오히려 평면에서 나타나는 합리성을 강조하여 절대적인 권위로까지 승화시켜 자연을 능가하고 복종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바로크적인 건축원리에 정통으로 반대되는, 신세기에 나타나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haux에서 나타나는 건축물의 외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원주(圓柱) 및 박공과 주법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건축에서 빌어 온 꺾데기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신을 구현하는 이러한 사상은 19세기에까지 전해 내려와 19세기의 절충주의 건축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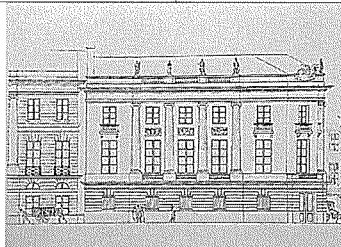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Chaux계획안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은 불순한 바로크 고전주의의 포기를 발견하게 한다. Chaux계획안의 평면에서 볼 수 있는 중심의 초점은 바로크 고전주의가 그러했듯이 공간 또는 외양에 따라 결정되고 만들어지고 각 공간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어 공간 및 건축요소들을 외부로 확산, 연결시키는 그러한 폭발점은 아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에서는 마치 천장이 없는 방처럼 만들기 위하여 장식한 벽, 나무 등으로 공간에 잘 어울리도록 둘러치던 과거의 바로크적인 풍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Chaux도시에 가깝고, Ledoux의 표현을 빌면 ‘평탄한 평야(rase campagne)’에 건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계획안은 타건축요소들과는 관계가 없이 고립된 정자들(pavillons)을 사용하는 소위 자율(autonomy)적 건축시스템이 채택되었다. Chaux의 이상도시는 기존의 지형조건을 비롯한 온갖 자연조건을 밀어 없앤, 즉 tabula rasa(따블라 라사)적인 허구의 이상적인 인공조건에서 출발하여 순수하고 이상적이며 플라토닉한 형태의 건물들로 채워넣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

Chaux의 시장(市場)과 대포주조소(大砲鑄造所)는 똑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계획되었는데 건물들은 사각형의 평면 위에 배치되었고 그 한 중앙엔 높은 건물이 전체를 압도하고 통제하는 듯이 서 있다. 이 두 계획안, 즉 시장 및 대포주조소 계획안의 외부 및 내부에서는 훌륭한 시각적 충격을 목적으로 다양한 건물들을 연출하듯이 배치하는 투시도적인 풍경은 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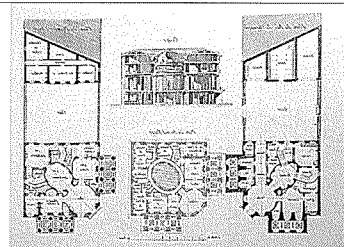
3) tabula rasa(따블라 라사)란 라틴어로 수평으로 평평하게 민다는 뜻으로 과거의 인습이나 사상 등을 일소하고 새로이 시작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모더니즘 이후, 특히 국제주의 건축운동 이후 주변 및 역사적 컨텍스트나 자연조건 등을 무시하는, 또는 구태의연한 구태를 일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심스러운 요소는 일소하고 시작하는 극도의 데카르트주의적 방법론을 가리키기도 한다. (cf. Le Corbusier의 도시계획안들)



할인은행계획안 (Caisse d'escompte)



몽모랑시저택 (Hôtel de Montmorency) 입면



몽모랑시저택 (Hôtel de Montmorency) 입면

찾아 볼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모든 바로크양식의 건축이 관자의 입장에서 인상적인 시각환경을 미리 예견하고 고안하는 것을 떠올린다면 현재 다루고 있는 새로운, 소위 자율적 또는 자주적 건축(architecture indépendante: independent architecture)은 이전의 바로크 건축과 얼마나 큰 거리를 가지게 되는가는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신시대의 합리주의적이고 자율성을 근본으로 하여 활동하는 건축가는 바로크 건축가가 연극무대를 설치하듯이 그곳을 방문하는 관자를 위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건축물의 '용도'만을 마음에 새기고 제작한다. 따라서 이 두 건축 사이에는 '외양'과 '존재(being)'의 철학적 명제 중 어느 것을 위주로 하는가의 중대한 선택이 있게 된다. 다시 반복하자면, Chaux의 이상도시 계획안에서는 중심이란 바로크 건축에서처럼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고 회귀되는 곳이 아니라 단지 여러 부분이 관계되는 기하학적인 초점의 장소일 뿐이다. 또한 이 계획안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아 건축물, 건축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날개의 요소들이 단순히 그러모아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출은 18세기 말에 들어서 사상 및 건축을 비롯한 예술분야에서 발견되는 완전히 변형된 감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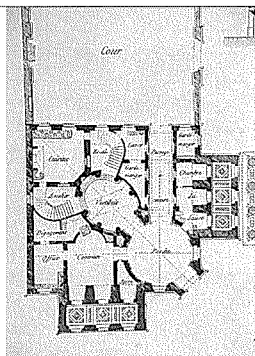
시장 및 대포 주조소에서 볼 수 있는 자율적 건축의 연출, 즉 각 건물동(建物棟)을 마치 외딴 정자처럼 배치하는 'système pavillonnaire(시스템 삐비오네르: 정자 시스템)'이 명백하게 채택된 것은 1778년에 완성한 Caisse d'escompte(까스 데스콩뜨: 할인은행)계획안이다. 각 부분은 크고 육중한 독립적 덩어리로 나뉘어져 어느 장소에 놓여지든 상관없이 보여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의 자율적 건축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부분간의 활발한 교통과 교제는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비중심화(非中心化)의 조짐이 보인다.

바로크 사슬체계에 근본을 둔 건축체계에서는 만약 한 부분이라도 떼어낸다면 균형이 파괴되어 전체를 파괴하게 된다. 만약 이 시스템 하에서 한 부분이라도 고립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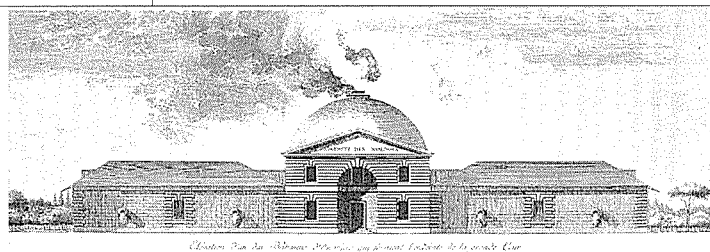
이 있다면 의미가 제거되어 배치의도에 있어 아무런 함목적성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정자(亭子) 시스템'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체-부분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자립적인 요소들의 자유로운 조합이 있게 될 뿐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크의 결합은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지배하고 부분들은 전체를 구성하지만 자율적 건축 시스템, 즉 정자 시스템을 채택하는 건축은 전체의 범주에서 보아 부분은 제각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두 시스템 사이에서 혁명적인 개념적 차이를 볼 수 있다.

당시 사슬의 개념은 건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체구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인자가 되기도 하여 Ledoux를 비롯한 당시의 합리주의자들의 작품에서도 빈번히 등장하는 끈질긴 주제였다. Ledoux가 1772년에 계획한 Hôtel de Montmorency(오텔 드 몽모랑시: 몽모랑시 저택)에서는 사슬의 개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기초 위에 있는 거대한 Palladio주범은 주층(bel étage: piano nobile)를 하나로 결합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상부엔 조각물이 설치된 지붕이 있어서 하부의 단단한 매스감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분해되고 약해져 조각물이 마치 그 용해점을 구성하여 공중에 녹아드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르네상스건축 이후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와 바로크시대에까지 이어진 거친돌 쌓기의 육중한 하부, 고상하고 우아한 느낌의 bel étage, 그리고 시각적으로 가볍게 덮는 지붕 및 수직방향의 조각 등으로 이어지는 파사드의 위계질서 및 상부로 향할수록 분해되는 듯한 시각의 단계적 변화와 이행을 발견할 수 있다. 평면을 분석하자면 역시 전통적인 수법이 남아 있어 현관과 살롱 등의 배치에서 조화로운 모서리의 배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edoux는 필연적으로 pièce d'apparat(삐에스 다빠라)를 대각선상에 배치하였다.⁴⁾ 1층의 입구 및 현관 홀 역시 동일한 배치형식을 취하였다. 착상에 있어서 이러한 대담성과 극단주의는 바로크를 능가하게 만들었고 평면, 입면 그리고 건물의 양계를 변형시켜 근

4) pièce d'apparat(삐에스 다빠라): 화려한 방이라는 의미로 과시를 위해 화려하게 치장한 눈에 잘 띄고 빈번히 사용하는 공적인 용도의 실을 가리킴.



몽모랑시저택 (Hôtel de Montmorency) 평면



Arc-et-Senans의 노동자 건물

본적으로 새로운 건축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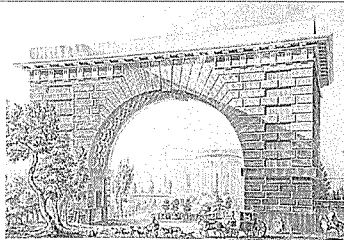
1771년에 Louveciennes(루브시엔느) 언덕에 세워진 Pavillon de la comtesse du Barry(빠비옹 드 라 콩테스 뒤 바리: 뒤 바리 백작부인의 정자)계획안은 Hôtel de Montmorency와 유사하다. 이 건물은 내부의 배치로 인해 유명하였는데 평면보다는 그 외관에 있어서 Hôtel de Montmorency와 비슷하다. 뒤 바리 백작부인의 건물은 이러한 유형의 건물 중 최초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Jacques-Anges Gabriel(작고 앙쥬 가브리엘)이 Versailles(베르사이유)에 Marie Antoinette(마리 앙뜨와네뜨)를 위하여 세운 Petit-Trianon(쁘띠 트리아농)은 그보다 거의 10년을 앞섰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1770년경부터 입방체 모양의 건축물이 허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뒤 바리의 건물의 평면에서는 선의 리듬과 직선 및 곡선의 교차 등 바로크적인 배치수법이 아직도 잔존한다. 이처럼 평면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과 즐거움의 연출은 Ledoux에게 있어서 논리적인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는 한다. 그런 면에서 그의 평면을 조사하면 마치 장식적인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른 시각, 즉 바로크에 익숙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 계획안은 오로지 주요부분만 있고 주변의 요소를 연결하는 익부(翼部)가 없어서 팔, 다리가 없이 단지 몸통만이 있는 기이한 건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면 및 평면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듯이 외부의 형태와 내부의 배치는 극도의 단순성과 복잡성이라는 대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후대의 모던건축에까지도 계승, 발전되는 전통적인 프랑스 hôtel건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Arcs-et-Senans에 세워진 사무직원 및 노동자들의 건물 역시 1770년에 지어졌고 위의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적 감각의 중대한 변형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바로크식으로 중앙부를 강조함으로 매우 특징적인 자태를 하고 있다. 2층으로 구성된 중앙부는 측면의 낮은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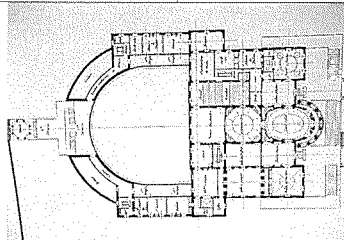
부와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그 반대로 그것은 독립적이고 타부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 강조되어 변별되고 있다.

Hôtel Thélusson(오델 텔뤼송: 텔뤼송 저택)은 궁륭의 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에 위치한 건물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곳으로부터 양편의 익부가 시작된다. 이것은 바로크에서 나타나는 단계적 변화와 위계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데 가운데 하나이다. 평면을 분석하면 전형적인 enfilade(엥필라드)식으로 salon과 현관이 배치됨을 발견할 수 있어서 아직도 바로크 고전주의의 형식과 가치 즉 불균등한 가치를 지닌 부분들의 조화로운 균형, 주-부(主-副)의 관계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음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처럼 평면에서 발견되는 균형과 리드미컬한 구성은 비록 작은 건물이긴 하지만 뒤 바리 백작부인의 건물에서도 발견된다. 반면에 Hôtel d'Uzes(오델 뒤제스: 뒤제스 저택)는 연대적으로 비교적 후기의 것이다. 각 층의 단계적 이행과 분절, 파사드에 채용되는 거대 주벽, 정원을 감싸는 익부들을 갖추고 있어서 Hôtel Thélusson을 닮은 복합적 건물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 건물에서는 근거 없이 생성된 곡선은 발견할 수 없고 'salon-현관'으로 묶여지는 양상들은 특별한 규칙을 위한 근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언급한 두 개의 건물에서처럼 유기적인 중심핵을 이루지도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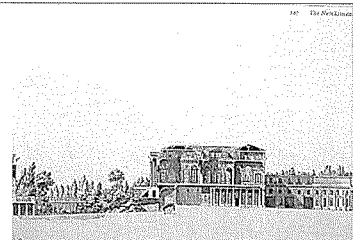
바로크의 규칙을 따르는 건물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한층 더 자율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건물은 Maison du Parc de Bellevue(메종 뒤 빠르크 드 벨뷰: 벨뷰 공원의 집)이다. 이 건물은 과거의 건축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이미 후기 프랑스 혁명시대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외부 계단과 망루는 블록쌓기놀이를 하듯이 단순히 매스에 첨가되어 전체는 하나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건물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갖다 끼워 붙인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 작품에서는 자율적 건축의 개념이 유지할 정도로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해석되고 표현되었다.



텔뤼송 저택 (Hôtel Thélusson) 입구



텔뤼송 저택 (Hôtel Thélusson) 평면



텔뤼송 저택 (Hôtel Thélusson) 단면